

부동명왕 좌상

부동명왕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무서운 표정으로 이쪽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오대명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힘도 가장 셉니다. 그 강대한 힘은 아마도 오대명왕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우주의 부처님이자 만물의 중심인 대일여래의 화신인 데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의 표정도 무시무시하지만 그 손에 든 검과 밧줄 또한 무섭습니다. 이 무기들에는 각각 목적이 있는데, 검은 칼자루 부분에서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금강저라 불리는 의식용 도구와 연결되어 있어 불교의 가르침이 침투하는 힘과 깨달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망상을 끊어내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밧줄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동명왕의 표정은 신자의 구제를 막으려는 거짓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무섭지만 부동명왕은 선량한 신이며, 님나지 절이 속해 있는 진언종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불교 종파에서도 중요한 신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